

# 魏晉時代 冠帽類型에 대한 社會的 意義

명지대학교  
김 성 희

目 次	
I. 머리말	III. 1. 魏晉時代 冠帽類型에 대한 社會的 意義
II. 1. 冠帽類型的 分類	2. Wiessner의 스타일 理論
2. 冠帽類型에 따른 行爲, 階級과의 關係	IV. 맺음말
3. 冠帽類型別 衣服形態와의 配合	

## 머리말

1972년 中國 甘肅省 嘉峪關에서 八基의 墓를 發掘했는데, 그 중 二號와 八號墓를 제외한 六基는 壁畫墓였다. 發掘報告書에 의하면, 墓群의 上限年代는 曹魏時期, 下限年代는 AD四世紀初, 魏晉時期로 추정했다. 嘉峪關은 魏晉時代에는 酒泉郡에 屬하는 곳으로서, 현재 嘉峪關市 附近에는 많은 古墓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이 八基墓는 비교적 규모가 크편에 속한다.<sup>1)</sup>(圖 1 참조)

自然損毀과 도굴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六百餘幅의 壁畫가 있는데, 대부분이 小幅畫로서, 한장의 面에 비교적 단순한 색 黑, 赭石, 朱色을 위주로 한幅의 內容을 表現했으나 一部分은 배열된 磚面에 다 連續해서 그렸다.<sup>2)</sup>

壁畫題材를 農桑, 牧畜, 釀造, 出行, 宴樂, 사냥等 當時의 社會 現實生活을 표현했기 때문에, 內容이 通俗적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壁畫의 數量은 많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다.<sup>3)</sup> 특히 人物圖는 魏晉時代 河西地區의 服飾文化를 반영할 뿐 아니라, 當時 中原地區의 政治的 혼란으로(八王之亂) 많은 사람들이 서쪽 涼州로 避難간 사실을 고려한다면 壁畫人物圖에 나타난 복은 魏晉時代의

服飾文化, 즉 漢族과 北方民族의 服飾이 서로 融合된 面貌를 제공하는 資料로 평가 할 수 있겠다.

本研究는 上述한 嘉峪關 壁畫墓 報告書에 수록된 人物圖를 基本 資料로 魏晉時代의 冠帽형태와 그 社會적 意義에 대해 論하고자 한다. 간접 資料인 圖片을 이용한 연구로, 冠帽의 材料, 色裝飾等 자세한 部分에 대한 分類는 불가능하므로, 冠帽의 外形적 스타일을 分類하여, 첫째 그 형태를 史料에 나타난 冠帽의 名稱과 비교하고, 둘째 冠帽의 類型別로 그것을 쓴 人物의 行爲 및 社會 階級과의 關係에 대하여 分析하고, 셋째 冠帽類型別 衣服형태와의 配合를 살펴봄으로서, 魏晉時代 冠帽 형태(style)의 다양성(vanation)에 대한 社會的 意義를 論하고자 한다. 또한 근래에 物貨文化의 스타일 다양성에 대한 본질과 그 원인에 관한 문제가 활발한 討論을 거듭하면서 진보된 단계를 보이고 있다.<sup>4)</sup>(PLOG 1983p.125-140, shennan 1989: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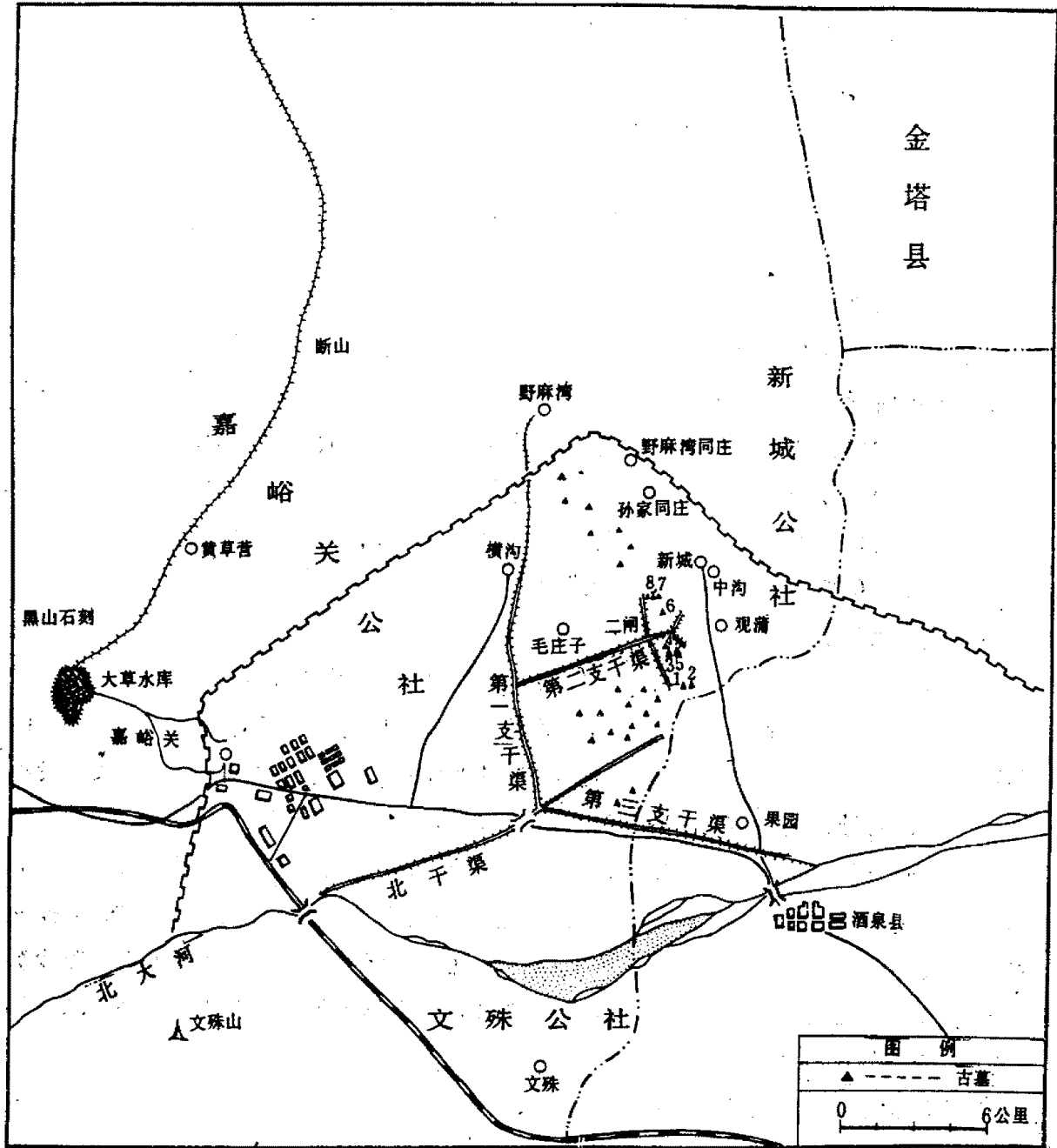
服飾文化가 지니고 있는 스타일의 다양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본질적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 같아서 本文에서는 魏晉時代 貴族의 冠帽 類型에 대한 행위적인 기초를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혹은 社會적 동일성(identity)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甘肅省文物隊等 1985 p.1.

2) 同上: 1985, p.46.

3) 同上: 1985, p.48.

4) Plog Stephen 1983, "Anqlysis of Style in Aftifacts" Ann, Review Anthropology p.125~142.



图一 嘉峪关八座墓葬位置图

## II. 冠帽의 類型 分類

冠帽의 定義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說文》: 「冠, 素也, 所以養髮, 弁冕之總名也, 弁冕元, 元赤聲, 冠有法制, 古从寸.

《釋名, 釋首飾》: 「冠, 貫也, 所以貫韜髮也」.

《說苑, 修文》: 「冠者, 所以別成人也」.

《禮記, 曲禮上》: 「二十日弱冠」.

《釋名, 釋首服》: 「帽, 昌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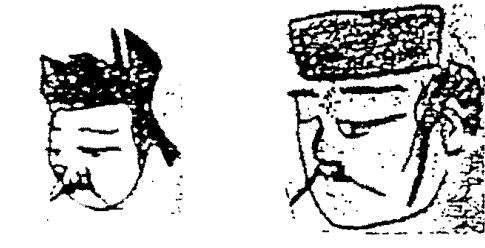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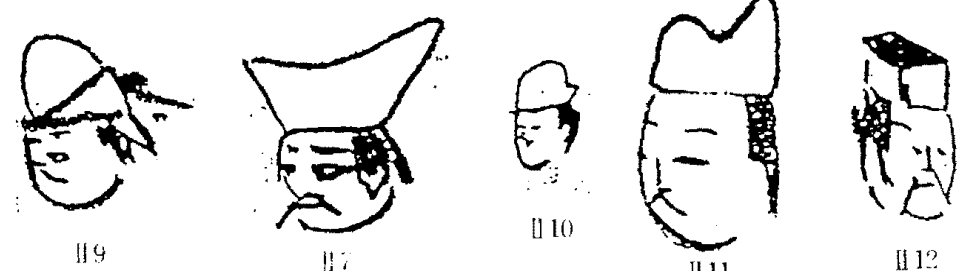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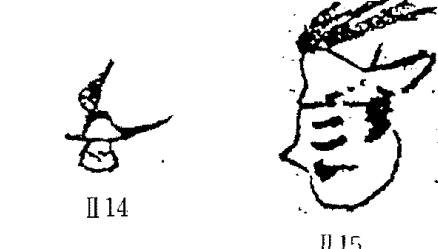
《玉篇》: 「帽, 頭帽也」라고 있다.

冠과 帽은 모두 頭衣 혹은 首服이지만, 「冠」은 身分이 있는 成人이 사용하는 首服의 總名으로 未成年과 庶人은 冠을 쓸수 없고, 貴族 男子는 二十歲에 冠禮를 필히 行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後漢書: 輿服志》에는 기록하길,

「上古六居野處, 衣毛昌皮, 後世聖人……, 見鳥獸有冠角而胡, 遂到冠冕纓蕤, 以爲首飾」하여서, 帽子가 上古적부터 있었고, 後世에 聖人이 새와 짐승의

〈圖 2 壁畫에 나타난 魏晉時代 冠帽分類圖〉

<p>月型</p>	<p>「幘」</p>	 <p>II6                      II4</p>
<p>「帽」</p>	<p>「巾」</p>	 <p>II9                      II7                      II10                      II11                      II12</p>
	<p>「帽」</p>	 <p>II13</p>
<p>插鳥羽的「帽」</p>		 <p>II14                      II15</p>

註：資料來源：甘肅省文物隊 1985

비슬과 구렛나루 수염을 보고, 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王宇清은 冠의 形態에는 共同의 特徵이 있는데, 즉 「冠卷」이 있다고 했고, 正式 名稱을 「武」라고 하여 冠과 帽의 分類 基準을 제시했다.<sup>5)</sup>

따라서 壁畫에 표현된 冠帽를 먼저 冠과 帽로 分類하고, 帽를 다시 幘, 巾, 帽子, 鳥羽插帽로 細分했다.〈圖2 참조〉

圖2를 살펴보면, 「冠」이 없는 대신 幘과 巾의 種類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먼저 古文獻資料에서 幘과 巾에 대한 內容을 찾아서 分類한 形態와 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1) 幘

幘은 본래 관을 쓸 수 없었던 卑賤한 執事者가 쓰던 것인데, 西漢 元帝의 額이 長髮입을 감출려고 幘의 頂巾을 높게 하고 雙耳을 加했는데 이후부터

5) Plog 전제서, 1989, p.86.

貴賤 모두가 幘을 쓰게 되었다.<sup>6)</sup> 古籍에 근거하여 學者들은 幘을 설명했는데 夾角의 頂으로 造型된 것은 「介幘」: 平頂의 幘을 「平巾幘」 또는 「平上幘」: 冠禮를 하지 않은 童子가 쓰는 無頂의, 雙耳을 加한 幘은 「卷幘」 혹은 「缺幘」이라 했다.<sup>7)</sup>

以上の 分流에 의하면, Ⅲ6은 介幘, Ⅲ4은 平巾幘 일 것이다.

### (2) 巾

《通志·器服》에 의하면, 「表紹戰敗幅巾渡河, 按此則庶人及軍族皆服元, 用全幅帛而向後襍髮, 謂之頭巾, 俗人謂之襍頭」. 라 하여, 幅巾은 貴人, 庶人 및 軍人도 쓰던 巾으로 全幅의 帛을 이용해서 頭髮을 뒤고 싸던 것을 頭巾이라 하고, 俗人은 襍頭라고도 불렀음을 기록했다.

《晉書·輿服志》에 幅巾과 「葛巾」에 대하여,

「魏武以天下凶荒, 資財之匱, 擬古皮弁, 裁縑帛以爲幘, 合乎簡易隨時之義, 以色別其貴賤, 本施軍飾, 非爲國容也」. 徐爰曰: 「俗說幘本米有岐, 荀文若巾之行, 觸樹枝成岐, 謂之爲善, 因而弗政, 今通以爲徑甲服」.

「巾, 以葛爲之, 形如幘而橫著之, 古尊卑共服也」. 이라하여, 魏武時, 天下가 凶荒하고, 資財가 결핍해서, 皮弁을 擬古할려고, 縑帛으로 재단한 것을 幘라 하며, 色으로 貴賤을 구별하나, 本來는 頭飾임을 나타내고, 또한 幘에 岐의 모양이 후에 생겼고, 慶弔服에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葛巾은 葛로 만든 巾으로 형태는 幘과 유사한, 角이 左右로 즉 橫으로 있어, 幘의 岐가 前後에 있는 것과 다르며, 身分의 尊卑를 막론하고 상용한다고 했다. 그외에 角巾에 대한 기록을 《晉書》에 의하면, 盖州護軍苑通謂潘曰: 「鄉旋旆之日, 角巾私第, 口不言平吳之事……」 (王潘傳), 「既定邊事, 當角巾東路歸故里」 (羊祜傳).

그래서 「角巾」은 一般士人가 隱退후에 쓰던 巾라고 주석이 되고, 《通典》에서는 「太元中, 國子生兒祭酒, 博士冠角巾, 齊依之, 陳依之, 北齊依之, 自後無角」 (卷五七). 라하여, 「四方의 角이 있는 巾」이라고 그 형태를 말했다.<sup>8)</sup>

以上 前述한 四種의 巾과 壁畫에 그려진 巾의 形態를 비교 해 보면, Ⅱ7은 葛巾, Ⅱ11은 幅巾,

그리고 Ⅱ12은 角巾일 것으로 辨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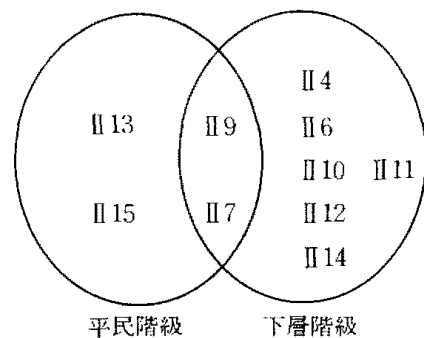
## Ⅲ. 冠帽類型에 따른 行爲, 階級과의 關係

壁畫에 나타난 여러가지 冠帽를 中心으로 그것을 쓴 人物의 行爲와 階級과의 關係를 관찰한 결과 아래의 <表 1>과 같다.

表1에 의하면, 첫째 魏晉時代 貴族들은 冠을 쓰지 않고 幘과 巾를 사용 했고, 둘째 冠帽을 쓰지 않은 男子의 數가 전체의 28.2%나 되었다.

冠帽를 사용하지 않은 傅斯年先生의 글귀: 「古代人은 髮飾을 중시여겨, 髮飾의 異同은 民族의 差異를 意味한다」.<sup>9)</sup>처럼, 아마도 當時의 民族 認同을 표현하는 것으로, 無冠帽의 男姓은 漢族이 아닌 河西의 少數民族일 것으로 여겨진다.

階級과 冠帽와의 關係를 알기 위해서 도식화 하면 圖3과 같다.



〈圖 3〉 幘와 階級과의 關係

魏晉時代의 貴族은 幘과 巾類만으로 사회적 地位가 平民階級과 差를 표현 할 수 있었고, 또한 貴族에서도 幘Ⅱ4과 Ⅱ6과 Ⅱ10, Ⅱ11, 및 Ⅱ12의 巾를 쓴 人物이 巾Ⅱ9와, Ⅱ7을 쓴 人物보다 地位가 더 높았다.

幅巾 葛巾은 尊卑共用이고, 角巾은 貴族用 幅巾은 色에 따라 貴賤을 구별하되 원래 軍飾用이라 上層貴族이 사용키는 부적당하다는 문헌의 기록과 도표3과 비교해 보면, (一) 葛巾(Ⅱ7)과 角巾(Ⅱ1

6) 將來斌, 韓養民 1989, p.9.

7) 張末元編 1963 p.17-19, 周汎, 高春明 1989, p.38.

8) 「太元中, 國子生兒祭酒, 博士冠角巾, 齊依之, 陳依之, 北齊依之, 自後無角」 (卷五七).

9) 傅斯年, 東北史綱 上海, 1932.

〈表 1〉 魏晉時代「冠帽」種別에 따른 行爲·階級과의 關係

行爲	階級	貴族庶人											
		貴人	庶人	貴人	庶人	貴人	庶人	貴人	庶人	貴人	庶人		
冠帽種別		室內活動	騎馬出行	出行	狩獵	農耕	畜牧	廚房일	馬車를 乘나	演奏	出行		
II型(帽)	幘	II 6	1	1	6	4							
		II 4	2		5								
	巾	II 9		2			*1	5	1				1
		II 7		4				4	1	2		4	
		II 10	2		2								
		II 11	3	2	1	1							
		II 12	1	1									
		II 13								2			
	帽	II 14		1									
		II 15						1					
合計		19	15	5	1	9	3	2	2	4	1	16件 (71.8%)	
冠帽을 쓰지 않은 男子		2		1	4	9	2	1	3	2	2	24件 (28.2%)	

不能確定與何種冠帽

2)의 內容은 서로 一致하고:(二) II9의 名稱이 幅巾일 가능성이 크고:(三) 幘巾(II11)을 쓴 人物은 地位가 높은 上層의 貴族이 될 것 같으며:(四) 史料에는 기록되지 않은 II10인 貴族用 巾이었다.

IV. 冠帽類型別 衣服形態와의 配合

冠帽와 衣服의 類型과의 配合에는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살펴 본다.

表2와 같이, 人物圖에 나타난 衣服의 類型은 袍, 袴褶, 長衣(종아리 정도의 길이) 무릎 바로 아래 短衣等으로 分類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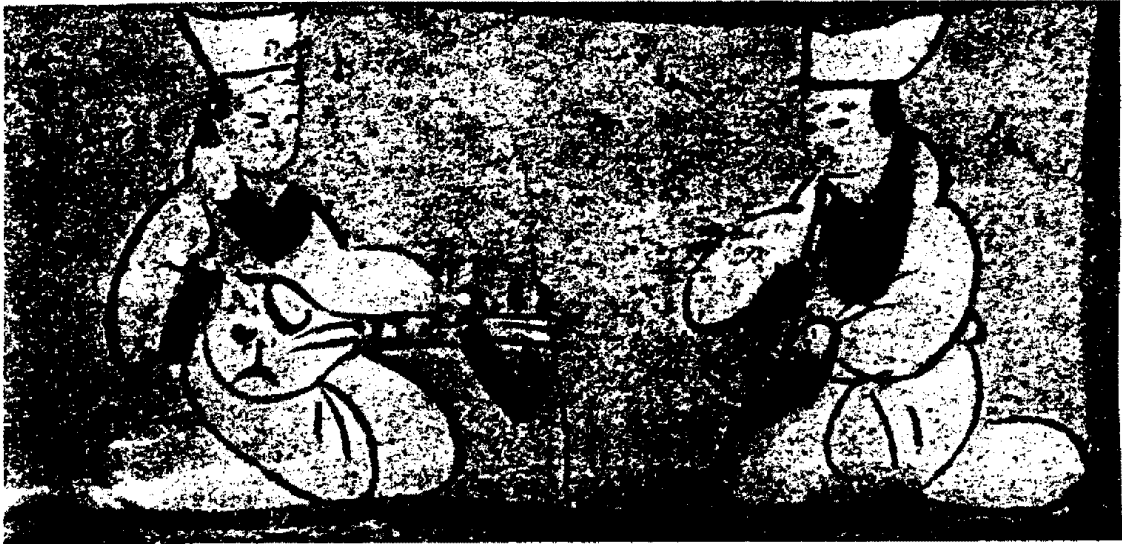
貴族 專用 冠帽中 II10, II11, II12類型的 巾을 쓴 人物의 衣服은 辨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외에 幘과 巾類(II4, II6, II14)를 쓴 貴族은 長衣와 袍와 「袴褶」을 입었다. 그중 袴褶을 입은

〈表 2〉 魏晉時代冠·帽類型에 따른 衣服配合

冠·帽	衣服	衣服配合			
		長衣(袍)	袴子자갓이 보이는 長衣	袴褶	短衣
II型	II 4	2		5(騎馬時)	
	幘 II 6	5		1(騎馬時)	
巾	II 9		5(庶人) 7(庶人)		4(庶人)
	II 7	8*			
	II 10	4*			
	II 11	2*			
II 12	2*				
II 13			2		
帽 II 14				1(騎馬時)	
II 15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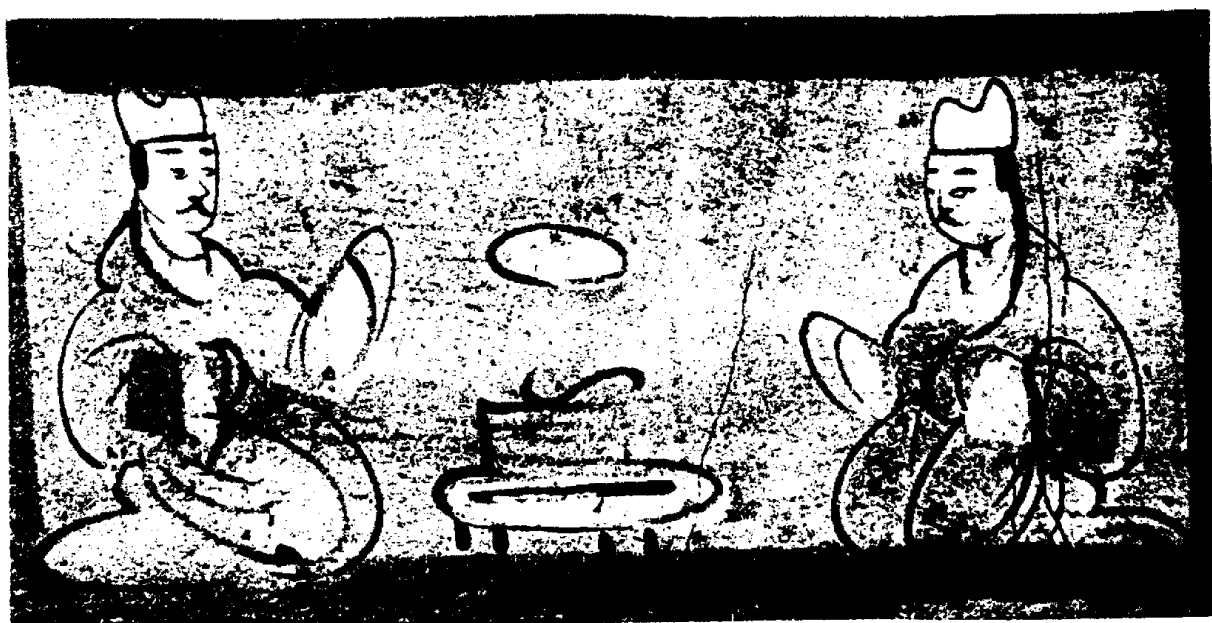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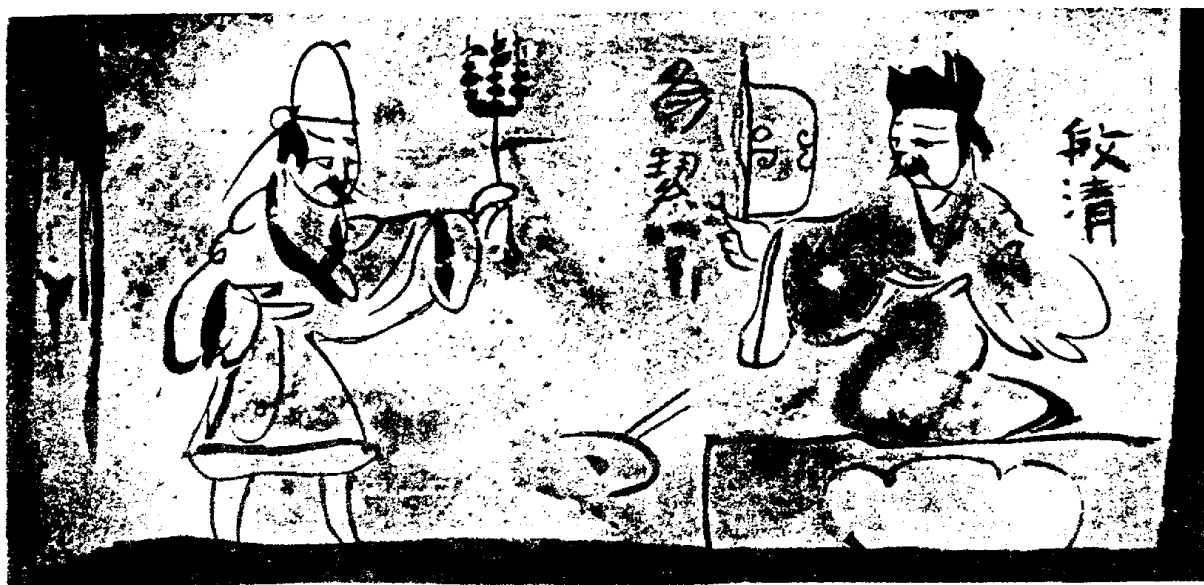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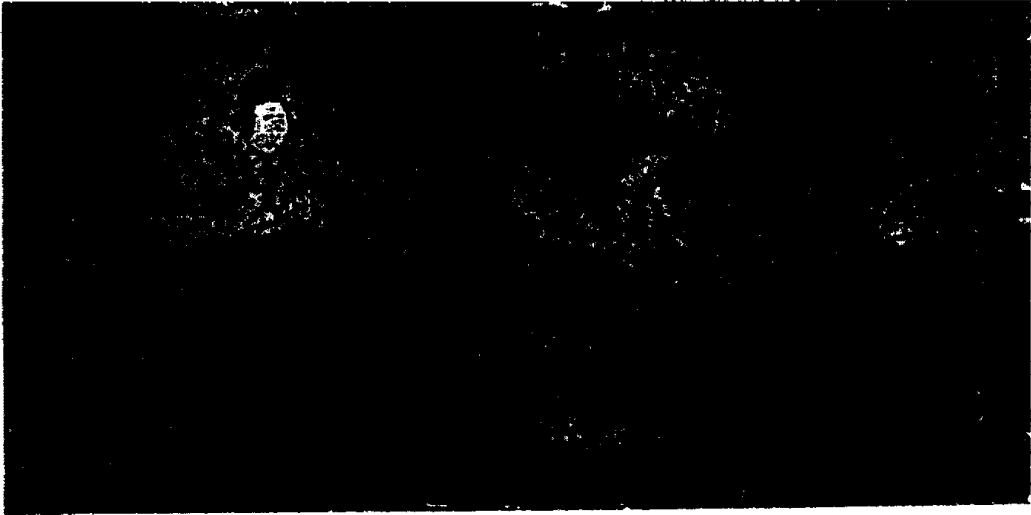
(4)



(5)



(6)



(7)



(8)



(9)

〈圖 3〉壁畫에 나타난 各種衣冠의 종류



貴族은 모두 騎馬 活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平民 階級의 사람들이 袴子가 보이는 長衣와 다리가 노출된 短衣를 입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계절의 차이를 反映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冠帽와 衣服類型別 配合도 前述한 冠帽 類型別 階級과의 관계에서 처럼 사회적 階級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魏晉時代의 冠帽 類型에 대한 社會的 意義

本節에서는, 魏晉時代 貴族들이 왜 貴族의 象徵인 冠을 쓰지 않고 幘과 巾으로 그들의 사회적 地位를 表現했는가? 를 고찰한다. 왜냐하면 이 現象은 中國의 古代 服飾史에서 중요한 사회적 意義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禮記》에는 「冠者, 禮之如也, 胡聖王重冠」라하여, 冠의 의미는 단순한 首飾이 아니라 禮의 시작을 뜻하므로 冠을 重視함을 기록했고, 또한 《左傳 哀公十五年》에는 「子路曰: 君子死, 冠不免, 結纓而死」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君子는 죽어도 冠을 벗지 않는다는 貴族 男性에 있어서 冠의 角色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魏晉時代에 와서 冠을 벗고 이진에 庶人이 애용하던 幘과 巾類를 썼다는 사실은, 禮에 벗어나는 變化라 하겠다.

魏晉時代, 貴族 社會에서 引起된 이러한 變化의 原因을 추측해 본다면, (一) 우선 統治者의 採用을 들 수 있는데, 《晉書·輿服志》에는 「案漢末王公月上多委王服, 以幅巾爲雅, 是以哀紹, 崔鈞之從, 雖爲將師, 皆著縑巾」라하여 이미 漢末 때 統治階層에서부터 幅巾를 冠대신 愛用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二) 中國의 周汎과 高春明은 다른 理念을 表現하는데서 나타난 差異이라 했는데, 다시 말해, 當時의 士人들이 받아들였던 玄學의 影響으로 禮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sup>10)</sup>

(三) 政治上의 混亂으로 인한 社會 組織의 變化는, 漢代 貴族의 象徵인 冠의 形制가 이미 그 機能을 소실하였기에 冠으로서는 社會階級의 認同을 表現 할 수 없음을 反映한다.

(四) 經濟的으로는 資源의 不足은 冠帽의 材料에도 變化를 일으켰다. 그 예로 「魏武以天下凶荒, 資財之匱, 擬古皮弁, 裁縑帛以爲幘…」《晉書·輿服志》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겠다.

以上の 社會, 政治, 經濟 그리고 理念等의 因素로 인하여, 魏晉 貴族의 冠帽類型이 變化 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렇지만 冠帽類型的 變化가 物品, 本身의 功能이 變化함을 表示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앞節에서 이미 강조 했듯이, 冠帽의 形態는 社會 階級을 反映하여 冠 대신 幘과 巾類等으로 貴族의 階級을 충분히 表現했다.

以上을 종합하면 魏晉時代 冠帽類型的 연구를 통해서 筆者는 첫째 古代 社會中에서 冠帽는 衣服의 一部分으로서 일종의 社會 地位의 象徵으로 作用한다. 다시 말해서 冠帽의 形態는 個人의 社會的 認同(identity)을 表現하는 도구로 作用했고, 둘째 上述한 解釋은 단지 그 社會의 歷史, 文化系絡(cultural context) 中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싶다.

## VI. Wiessner의 스타일 理論

本 研究의 이러한 초점은 독일의 考古學者 Wiessner 가 器物의 스타일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발표한 그녀의 견해와 일치한다. 즉 '스타일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認同(identity)을 다른 사람과 맞서서, 교섭함으로써 전달되어 지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다.'<sup>11)</sup> Wiessner 1989 p.57). 그래서 스타일의 개념을 개인적 혹은 사회적 認同(identi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物貨文化 속에서 表출되어 진 형식적인 다양성(formal variation)으로 규정하고, 스타일에는 크게 두개의 다른 層面이 存在한다고 제안했는데, 즉 Emblematic style(상징적 스타일)과 Assertive style(단정적 스타일)이다. 그녀의 理論에 의하면 每種 層面은 각 다른 대상을 소유하고, 각기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며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각기 다른 變異의 패턴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分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2)</sup>

10) 周汎, 高春明, 中口古代服飾風俗 台北, 文津出版社, 1989, p.39.

11) Wiessner 1989, p.57.

12) Wiessner 1983 p.256-257.

우선 Emblemic 스타일에 대하여 說明한다면 첫째 族群이나 경계(boundaris)를 구분하는 정보를 전달하지 族群간에 있는 互動의 程度는 내포하지 않는다. 또한 Emblemic 스타일은 규정과 추방과 같은 기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상징적 특징을 지닌 遺留의 분포 영역을 참고로 하여 동일성(identity)에 대한 메시지를 분리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emblemic 스타일은 再生産 과정에서 생겨난 착오로만이 그리고 지시 대상물이 변화하거나 혹은 분리되어질때만이 단지 빠른 변화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이 스타일은 특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므로 必히 一致성과 명확성을 갖고 지역적 경계(boundaries)를 구별하는 標準이 되기 때문이다.<sup>13)</sup>

Assertive 스타일은 첫째 社會的 互動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Assertive 스타일은 여러종류의 단체중 그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전달을 건네줄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무리부터 개인을 구분함으로써 개인적인 동일성(identity)에 대해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物隊文化 形式尙의 變異(vanation)이며,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개인적 동일성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둘째 Assertive 스타일은 대상물의 구역을 辨別하는 特別 目的이 없기 때문에, Emblemic 스타일과는 變遷하는 상황이 다르다. 즉 通常 發明이나, 傳播에 의해 스타일의 變化가 생기므로, 이러한 이유로 Assertive 스타일은 社會 變遷의 重要한 地標로 作用할 수 있다.<sup>14)</sup>

上述한 스타일의 다른 層面을 봄으로써 우리는 스타일이 행위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資料의 해석은 歷史的, 文化的 系絡(context)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결국 스타일은 개인과 사회의 이해 관계에 대한 균형을 지시하는데 새롭게 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sup>15)</sup>

本文의 主題인 魏晉時代 冠帽의 類型에 대한 分析을 Wiessner의 스타일 理論에 대입해 보면, 當時 貴族의 冠帽類型은 Emblemic 스타일의 측면으로 여기진다. 바꿔 말하면 古代 階級사회에서 地位가 높은 貴族들은 그들의 權力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자연히 사회 구성원의 思考方式을 통제하는 수단이 필요했으므로 貴族 集團인 그들의 동일성을 冠帽의 형태를 빌려서 魏晉時代 개인들에게 전달했다. 게다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의 因素가 貴族사회에서 冠대신 帽을 대처할 수 있는 基本 機制(mechanism)가 되어서, 貴族 개인간 일종의 현저한 동일성(salient identity)의식을 연출했다.<sup>16)</sup>

## Ⅶ. 맺음말

魏晉時代 貴族이 쓰던 幘과 巾類는 비록 冠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庶人의 것과는 구별하여 貴族 사회의 存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mblemic 스타일의 특징을 갖는다.

魏晉時代 冠帽類型을 통해서 미해결한 문제들은 왜 II9와 II7처럼 貴族과 庶人이 共用으로 하는 형태가 있느냐? 庶人이 사용한 형태는 스타일적으로 어떠한 행위적 기초를 내포하는가? 등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服飾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인 스타일적 다양성에 대한 여러 문제를 人類學의 연구방법으로 접근하는 作業을 시도할 생각이다.

## 참고 문헌

- 紀昀等總纂(清)玉篇 故宮博物院藏本(清)說文解學(漢:許慎撰) 商務印書本  
 杜佑(唐)通典 台北:台灣商務  
 房玄齡等(唐)晉書 台北:鼎文書局  
 沈玉成譯 1982 左傳譯文 台北:源流文化事業公司  
 王宇清 1989 中國服裝史綱 台北:甘肅省文物隊等 1985 嘉峪關壁畫發掘報告 北京:文物出版社  
 王夢驅註譯 鄭玄著 1987 禮記今註今譯(漢,禮記) 台北:台灣商務  
 苑日華(南朝宋)後漢書 台北:鼎紋書局  
 劉向(漢)說苑 台北:台灣商務  
 劉熙(漢)釋名 台北:台灣商務

13) Wiessner 1983, p.257.

14) Wiessner 1983, p.258.

15) Wiessner 1989 p.58-59.

16) Schortman, E.1989, Interregional Interaction in Prehistory: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American Antiquity 54(1), p.52-65.

- 張末元 1963 漢代服飾參考資料 香港：太平書局
- 張來斌, 韓養民 1989 秦漢風俗 台北：博遠出版有限公司
- 周汎, 高春明 1989 中國古代服飾風俗 台北：文津出版社
- 鄭樵 (宋) 通志 台北：史學叢書
- 傅斯年 1932 東北史綱 上海
- Plog, Stephen 1983 "Analysis of style in Artifacts". *Ann, Review Anthropology* 12 : 125-142.
- Shennan, Stephen 1989 Introduction :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in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Stephen shennan (ed), 1-31 Unwin Hyman Ltd, UK.
- Schortman, E. 1989 Interregional Interaction in Prehistory :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American Antiquity* 54(1) : 52-65.
- Wiessher, Polly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8 : 253-276.
- 1990 "Style and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uety". in *The Meanings of Things*, Hodder Ian (ed), 56-63. Unwin Hyman Ltd, U.K.